

국가대표 신태용에 치명상…두바이 쇼크는 ‘20년 묵은 빚’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신태용과 이란축구, 그리고 설욕

96년 아시안컵서 이란에 2-6 치욕의 패배
골 넣은 신태용도 이듬해 대표팀서 사라져
세월 지나도 한국 조롱하던 손가락 ‘6과 2’
케이로스 이란감독 주먹감자 도발 오버랩

기자가 처음 이란에 축구취재를 간 때는 17년 전인 2000년 여름이었다.

2000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LG배 이란 4개국 초청대회’에 출전한 허정무 감독의 한국대표팀을 동행 취재했다. 처음 가본 곳이 대개 그러하듯 이란이라는 낯선 곳이 전해준 새로움은 지금도 선연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었고, 한국산 브랜드의 자동차와 에어컨이 왜 그리 많이 눈에 띄던지 은근히 자부심도 생겼다.

아자디스타디움의 웅장함과 경기장의 위치가 해발 1200m의 고지대라는 사실도 인상적이었다. 이란이 지리적으로는 중동에 위치하고 종교적으로 이슬람권이지만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민족적으로 아랍국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더 깊이 이해했다.

모두 팬창은 기억만 남은 건 아니다. 자존심을 굽힌 장면도 생각한다.

공항과 숙소, 경기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소개하면 어김없이 손가락으로 ‘6’과 ‘2’를 표시하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대표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의미를 알아챘다. 한국축구를 조롱했던 것이다.

내용은 1996년 12월 UAE 두바이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 이야기였다.

한국은 이란에 2-6으로 졌는데, 4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그걸 자랑삼아 손가락으로 상대를 놀리고 싶었던 것이다.

한국은 김도훈의 선제골과 신태용의 추가골로 전반을 2-1로 앞섰지만 후반에 이란의 축구스타 알리 다에이에게 무려 4골이나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다. 한국축구는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8월 28일 파주 NFC에서 진행된 축구국가대표팀의 훈련에는 해외파의 합류로 26명 전원이 참가했다. 공격수 이동국(위)과 김신욱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다. 파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축구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박종환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전력이 비슷한 팀끼리의 대결에서 6골이나 먹었으니 할말은 없게 됐지만 그래도 그 한 경기를 가지고 몇 년을 우려먹는 걸 보면 이란 팬들이 꽤나 신이 났긴 났던 모양이다.

신태용은 당시 A매치 21번째 경기에서 3번째 골을 기록했지만 무참한 패배로 빛이 바랬다. 더욱 안타까운 건 20대 중반의 신태용이 그 시절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영남대를 졸업한 1992년 일화(현 성남)에 입단해 그 해 K리그 신인상을 받았다. 성남이 1993~1995년 K리그 3연패를 달성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1995년 K리그 MVP, 1996년 K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미드필더가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골 감각이 탁월했다.

199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기여했다. 축구인들은 신태용의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을 극찬했다. 명석한 두뇌회전과 탁월한 기량으로 ‘그라운드 위의 여우’는 그렇게 성장해갔다. 당연히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대표팀에서 폭발만 해준다면 한국축구를 이끌 에이스로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K리그 최고의 선수는 대표팀에만 가면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존재감이 없었다. 특히 ‘두바이 쇼크’는 그의 축구인생 향로를 송두리째 바꿀놓은 듯한 느낌마저 준다. 이란에 치욕

비매너의 상징 이란…축구협 “원칙대로”

비신사적인 이란의 사례

한국이 예약한 원정숙소 이유없이 못쓰게
원정 와선 불평 불만…특히면 무리한 요구

국제축구연맹(FIFA)이 항상 부르짖는 페어플레이와 가장 거리가 멀다. 거칠고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일삼는다. 앞서고 있을 때면 약간의 충돌에도 그라운드에서 드러누운 채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렇다고 경기장 밖의 매너가 좋은 것도 아니다. 원정 팀에게는 그들이 즐겨 활용하는 해발 1200m 고지대 스타디움도 악명 높지만 손님대접은 더 형편없다. 사전 답사를 위해 현지로 직원을 파견해도 소용없다. 약속된 사인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렇듯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듯하면 난리법석을 떠다. 낮 뜨거울 정도로 요란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곳곳에 불평을 전달해 시정을 요구한다. 8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만날 이란은 ‘비매너’의 상징이다. 과거 페르시아 왕국의 대범함은 찾을 수 없다.

한국축구대표팀이 이란 원정을 떠날 때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훈련장을 일부러 먼 곳을 배정하고, 방금방금 돌아가는 것은 차라리 애교다. 사전 예약된 숙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적도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멀쩡히 영업을 하면서 한국만 제외 대상이다.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당시 우리 대표팀 코칭스태프에 주먹감자를 날려 비호감이 된 이란대표팀 카를로스 케이로스(포르투갈) 감독



이란대표선수들이 8월 28일 파주시 파주스타디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독은 8월 26일 입국하면서 “한국은 어려운 상대다. 강호와 대결하는 것은 배움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뻔한 팀 서비스를 했다.

굳이공대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의 과거를 들먹였다. 선수단 숙소가 있는 김포와 가까운 인천아시

아드 주경기장 보조구장에서 훈련하기에 앞서 “(훈련장) 잔디 질이 좋지 않다. 월드컵을 열었던 한국 팬들이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주먹감자 대장은 지적했다.

이는 이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한국 원정을 앞두고 이란은 축구협회 차원에서 누구도 답사를 오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에 훈련장 정보를

요청했고 인천아시어드 보조구장, 파주공설운동장 등을 추천받았다. 선택은 직접 이란이 했다.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한국 원정에 유난히 무신경했다. 그러면서 “우리 무실점, 무패로 월드컵 본선에 오를 것이다. (최종예선 2위 싸움을 벌이는데) 한국, 우즈베키스탄의 행운을 빈다”고 악을 살살 올렸다.

뿐만 아니다. 선수단 연락 담당자를 구하면서 페르시아어 대신 영어를 잘하는 인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팀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한 조직은 스스로 패배적인 집단임을 밖으로 드러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우리 손님대접이 후했다. 그래서 갑자기 섬세하게 할 수도 없다.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줄 수도 없지만 정말 형편이 없었는데 굳이 애써 질할 필요도 없다. 정확하게 규정과 원칙대로 처리 한다. 휴여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정중히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박성현이 8월 28일(한국시간) 오타와 헌트&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캐나다퍼시픽 여자오픈 최종라운드 15번 홀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이날만 7언더파를 몰아친 박성현은 역전 우승으로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오타와(캐나다) | AP뉴시스

▶‘박성현 캐나다오픈 우승 의미’ 1면에서 이어집니다

박성현 우승상금 3억8000만원…총상금 21억 돌파

3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모 마틴(미국)과 니콜라르센(덴마크)이 초반 난조로 선두경쟁에서 일찍 탈락한 가운데 경기는 박성현과 전인지(23)의 맞대결로 흘러갔다. 박성현은 3번, 6번 홀 버디로 시동을 건 뒤 8번~10번 홀에서 3연속 버디로 11언더파를 기록하며 단독 1위로 뒤흔쳐나갔다.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전인지도 쉽게 우승을 허락하지 않았다. 8~10번 홀 3연속 버디로 12언더파를 기록하며 1타차로 역전했다.

하지만 전인지는 12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주위 벙커로 보내면서 보기를 기록, 박성현과 공동 선두로 내려앉았다. 박성현은

16번 홀(파4) 4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1타 차 단독 선두로 다시 올라선 뒤 18번 홀(파5)에서 장기간 장타 덕분에 이글 찬스를 만들며 우승 안정권으로 달아났다.

연장전을 위해서는 18번 홀 이글이 필요했던 전인지는 두 번째 샷을 벙커로 보내면서 한 타를 잃어 순위가 떨어졌다. 이미림(27)이 11언더파 273타로 단독 2위에 올랐고 올해 준우승만 네 차례 한 전인지는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3위가 됐다. 박성현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승이지만 기분은 최고다. 신기할 뿐이다. 내 할일을 묵묵히 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오늘은 샷과 퍼트 모든 게 잘

됐다. 완벽한 일주일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 코스가 나와 잘 맞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LPGA 무대에 뛰어들며 설정했던 목표를 모두 이뤘다”고 털어놓은 박성현은 새로운 도전 과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예비앙 챔피언십 우승이 욕심이다. 이번 대회에서 좋았던 감각을 잘 유지해서 예비앙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다.

LPGA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예비앙 챔피언십은 9월 15일 개막한다.

LPGA 평균타수 2위와 올해의 선수 3위, 세계랭킹 4위에 올라있는 박성현은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즌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음 우승을 향해 또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